



새봄 꾸는 봄날 시작... 좋은 일만 가득하길

곳곳 입춘등 분위기 예열 내일부터 '탐라국입춘굿' 춘경문굿으로 문 열고 4일 입춘굿으로 막내려

다시 돌아온 새봄, 새로운 시작을 열며 한 해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탐라국입춘굿.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시간을 돌고 돌아 올해 4년 만에 대면행사로 도민과 만난다. '성안이 들썩, 관덕정 꽃마중'을 주제로 내걸고 "2023 계묘년 탐라국입춘굿"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민예총은 이날 2일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 앞서 지난달 말쯤부터 입춘초롱 달기, 소원지 쓰기, 궁청 기원차롱, 입춘교실 등 온라인과 대면으로 입춘맞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시 찾아온 입춘굿을 기다리는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제주민예총

은 입춘맞이 중 하나로 진행된 입춘교실에 3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펼쳐질 올해 '탐라국입춘굿'은 2일 거리굿을 시작으로 3일 열림굿에 이어 4일 입춘굿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첫날은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문신에게 올리는 '문진제'의 의미를 살려 제주도 주요 관청과 교통관문, 원도심을 돌며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제주시민속보존회 주관으로 도성삼문거리굿이 펼쳐지고, 모든 참가팀이 관덕정 광장에 모여 신명을 달군다. 그리고 관덕정과 외대문, 목 관아 내 중심건물에 황수기 및 대형춘등을 걸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 '열림굿' 행사에선 풍요를 기원하는 세경제를 시작으로 낭세교사, 입춘회초 퍼포먼스와 향아리를 깨뜨려 모든 액운을 제주도



제주목 관아에 전시되고 있는 '낭세'와 복 향아리. 제주민예총 제공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인 사리살성 등이 예정돼 있다. 제주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만날 수 있는 창작마당도 준비돼 있다.

마지막 날 '입춘굿' 행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정 비넵, 제주큰굿보존회가 주관하는 입춘굿과 세경놀이를 비롯 낭세놀이, 입춘덕담, 입춘탈굿놀이 등으로 채워진다.

대면 행사 재개에 따른 시민참여 체험마당도 풍성하다. 3~4일 제

주목 관아와 관덕정에 먹거리마당과 입춘장터, 시민참여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다시 입춘전남곡수를 맛볼 수 있고, 수선화 화분 나누기 등 입춘장터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소원지 쓰기, 궁청 열명·기원차롱 올리기를 비롯 옷점과 전통놀이 체험, 입춘기메듭 만들기, 복을 담은 열쇠고리 인형 만들기, 입춘소원구름기·타로카드 운세 등 다채로운 체험마당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올해 문화예술지원 사업 신청 늘어

공모 결과 신청건수 전년대비 2.5% 증가한 862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한 올해 문화예술지원 사업 공모 결과 총 862건이 접수됐다. 지원 신청액은 86억654만원이다. 재단은 심의를 거쳐 32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모는 예술창작활동지원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제주문화재단은 지난해와 총 지원 신청건수를 비교하면 2.5% 증가했으며, 우수창작활동지원 단년제 폐지, 정액지원 확대 등으로 지원 신청액은 6.8%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유형별 지원 신청 규모를 살펴보면 ▷기초예술활동지원 733건·59억4054만 원 ▷사회적 가치

예술 활동 지원 (프로젝트 제주 예술 프로젝트 지원) 22건·4억4000만 원 ▷창작기반 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등) 89건·9억6600만 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18건·12억6000만 원으로, 이 중 예술창작활동지원이 655건 (신청액 48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르별로는 음악이 265건·29억455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각예술 250건·21억1912만 원 ▷문학 175건·9억1900만 원 ▷연극

49건·9억8675만 원 ▷다원예술 47건·6억5120만 원 ▷전통예술 38건·5억4118만 원 ▷무용 28건·3억4600만 원 ▷일반예술 10건·9775만 원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개인이 463건·26억2900만 원이었고, 단체는 399건·59억7754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단체 지원 건수는 5.3% 증가했다. 심의 결과는 이달 말 누리집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발표된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이달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이달부터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시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전용카드로, 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지원된다. 카드 발급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금이 자동재충전돼 이달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시설에서 신청해 사용한 카드나 카드를 발급받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재충전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은 약 800여 개다. 올해부터 가맹점 등록 가능한 업종 및 품목으로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문화예술활동 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생활용품 체험활동 (비누, 방향제 등) 등이 추가됐으며, 이외에 온천이용권, 테마파크 이용권도 구매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상반기내 신규 가맹점 등록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고재만의 **김영하가 읽는** <339>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멍이 골멘, "하르바님, 경흥디 난 양 동짓날이영 흥 발 무신 말인지 잘 몰르쿠다. 꺾죽은 그날만 먹어마쭈?"

하르바지 골멘, "애야, 옛날부터 관습으로 느려온 일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동짓날이 꿩인 꺾죽을 서로 갈랑 먹으면 좋네 흥여서, 요작이 곤지 안 흥여서야, 일년 중 동짓날은 밤이 진진흥영 이날 밤이 꺾죽을 먹으면 들림명도 안 걸리곡 꺾안 흥게 잘 살아진네 흥연 꺾죽을 먹었네 골앗주. ○멍이야, 꺾죽은 딱난 날에도 먹어진다. 느가 먹고정 흥인 골오라. 경흥디 매날 매날 먹어지크냐게."

○멍이 골멘, "에, 알앗수다."

즈네 골앗저, "이번인 경의삼춘네서 꺾죽 꺾정왕 먹을겨어. 꺾죽에 흰떡도 들어시킨 맛좋은 겨어게."

*** 제주어 풀이**

- *무신 : 무슨, *몰르쿠다 : 모르겠어요, *먹어마쭈? : 먹어요?
- *옛날부터 : 옛날부터, *느려온 일이지만 : 내러온 일이지만,
- *꺾죽 : 되면은, *갈랑 먹으면 : 나눠 먹으면,
- *흥연 흥여서 : 좋다고 했어,
- *요작이 : 요전에, *곤지 안 흥여서 : 말하지 않 했어,
- *진진 흥디 : <그림>같다, *진진 흥영 : 같아서,
- *들림명도 안 걸리곡 : 감염병도 안 걸리고,
- *꺾안 흥게 : 꺾안 흥게, *살아진네 흥연 : 살아진다고 하여,
- *꺾죽을 먹었네 골앗주 : 꺾죽을 먹었다고 했어,
- *먹고정 흥인 : 먹고 싶으면, *골오라 : 말을 해,
- *먹어지크냐게 : 먹을 수 있겠냐, *알앗수다 : 알았어요,
- *이번인 : 이번에는, *삼춘네서 : 삼춘때에서,
- *꺾죽 꺾정왕 : 꺾죽을 가져와서, *맛좋은 겨어게 : 맛이 좋으리라 본다.

고재만 화백(전문가)

김영하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이달 11일 서귀포예당 대극장 참여 신청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김 작가는 '자별인사',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 한 김 작가의 강연과 품셈어린어림정단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오은지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사원 어재활사